

교회목표

1. 천국일본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18:1)

주강총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7일 교구위원회 간담회 가져

우리 교회 교구위원회(위원장 손동운 장로)는 지난 1월 7일 저녁 7시에 국제회의실에서 위임목사, 교구장, 교구담당목사, 전도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저녁 늦은 시각까지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18개로 증설된

교구 운영에 관한 이종윤 위임목사의 기본적인 지침이 발표되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교구의 활성화가 교회 부흥의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교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범 교구를 발굴하여 그 교구의 운영 사례



들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청지기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1월 초부터 각 직분별로 실시되고 있는 청지기 수련회가 성도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은혜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권사회는 지난 9일에 갈릴리움에서, 교회학교 교사는 10일에 본당에서, 사무직원들은 11일에 칼빈홀에서 찬양대원은 12일에 본당에서 각각 수련회를 가졌다.

수련회 참가자들은 이종윤 위

임목사로부터 91년도 목회지침을 설명받고, 모범적인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권사회는 권사로서의 사명 완수와 수요철야기도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교사들은 “교사의 사명과 책임”,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관한 특강을 가졌고,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의 자질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



졌다. 또한 사무직원들도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장년1부 “30대 영성 재무장수련회” 계획

장년1부는 오는 1월 24일에 30대 영성 재무장 수련회를 개최한다.

베다니홀에서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행해질 이번 행사에는 이 조웅 목사와 신상철 박사가 강사로 수고한다.

특강에서 “30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내용과 “성경이 말하는 30대”, “30대의 고민과 대책” 등이 다루어 진다.

변화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30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과 시청각 교재를 통한 교육도 있을 예정이다.

이제 교회의 기둥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30대들이 후회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 계획된 이 행사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삶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은 대학부 수양회

대학부(부장 이훈 장로)는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현 기도원에서 동기수양회를 가졌다.

“제자로 살자”라는 주제 아래 송태근 목사(고등부 지도)와 정기봉 목사(초등부 지도)를 강사로 모시고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김해규 목사가 진행했던 경건의 시간과 송태근 목사의 “말씀·기도·성령”으로 되는 제자”라는 주제 강의와 디모데전서를 중심으로 정기봉 목사가 맡았던 사경회는 학생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였다. 또 베드로 후서를 예로 들



어 전개된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 방법에 관한 강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탐구에 대한 새로운 의욕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학생 상호간의 교제를 위하여 축복의 시간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가즈요시 구리하라 부부 일본 협동 선교사로 파송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가즈요시 구리하라(현 일본 CCC대표), 다마요 구리하라 부부는 협동 선교사로 일본에 파송하였다.

앞으로 구리하라 부부를 일본 선교의 전진 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학생 선교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타 선교를 위한 각종 행사에 협력해 나갈 것이다.

헌금 봉투에는 정확한 교적 번호를

회계부는 헌금 수납 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성도들이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헌금할 경우, 교적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성도의 교제

김중선·이소규 집사(제6교구) 오류동에 남녀 구두 및 잡화 취급점 레스모아 개업(전화: 689-3055, 613-3084)

김순규 성도(제4교구) 자동차 경보기 10대 기증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N선생님,

보내 주신 귀한 잡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국만리 독일 땅에서도 모교회를 잊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기도해 주신다니 정말 힘이 납니다. 선생님이 보내 주신 소포를 뜯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피겔》(Spiegel) 잡지의 표지에 우리 교회가 소개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저는 싱가포르에서 출판된 아시아 교회 잡지 《아시아 처치 투데이》(Asian Church Today)에 우리 교회의 사진과 새벽기도 장면이 담긴 기사가 4면 이상 실린 것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에는 일본의 기독교 신문과 필리핀의 《미션 아시아》(Mission Asia) 잡지에 우리 교회에 대한 장문의 기사가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AD 2000년 운동’에서 출판하는 잡지에서도 총현교회 홍해작전을 기사로 다루면서 21세기 운동의 기도전략으로 ‘홍해작전’이라는 표제를 채택한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총현은 더 이상 한국 내의 지역 교회로만 머물 수 없게 된 사실과 더욱 커진 사명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해외에 계신 총현의 가족들의 신앙적 성숙과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총현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먼 나라에 계시더라도 자기 성숙은 물론 모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해외에 계신 모든 총현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I. 13
이 중 윤 목사

20일은 세계선교주일 31일까지 세계선교 표어 공모

우리 교회는 오는 1월 20일(주 저녁 7시에는 선교헌신예배를 일)을 세계선교주일로 정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되새기며 세계 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먼저 20일 I, II, III, IV부 예배 시간에는 선교 헌금을 작성하고, 저녁 7시에는 선교헌신예배를 드린다. 또한 선교위원회는 1월 31일까지 성도들의 세계 선교에 대한 의지를 담은 표어를 공모하고, 교회학교 부서별로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대회를 갖는 등 특별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총현유치원 원아모집

1. 지원자격 : ① 1985.3.1~1988.2.28에 출생한 어린이
② 기독교 교육을 받기 원하는 어린이
2. 모집정원 : 80명
3. 제출서류 : ① 본 원의 소정 양식
② 사진 5매
4. 원서교부 : ① 1991. 1. 14(월) ~ 26(토)
② 유치원 사무실(소석관 201호) 및 사무국(소석관 102호)에서 교부
5. 원서접수 : 1991.1.21(월) ~ 26(토)
오전 9시 ~ 오후 5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책자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강해

이 중 운 목사

믿음의 기반

“가로되 주여 그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11:27)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던 그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다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주여 그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했던 신앙고백도 이에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신앙고백입니다.

마르다의 신앙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고백의 원형으로 삼고 있는 사도신경에 비해 매우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신앙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말씀에 근거한 고백

마르다의 신앙고백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이해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많은 예수전을 읽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나 기적들을 먼저 다루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하나는 전반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사해 놓고 후반부에서 그것의 결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을 다룹니다. 전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후자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신 까닭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는 인간들이 찾을 수 없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진리와 함께 하는 자요, 진리 안에 사는 자들

입니다.

경험에 근거하여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경험에 바탕을 둔 신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경험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2. 세 가지 고백

마르다가 했던 신앙고백의 첫번째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요11:27)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번역됩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왕으로만 이해하려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의 그들의 사고 습관이었습니다(삼상9:16; 24:6).

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를 만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질책하셨습니다(마 16:13-23).

그밖에도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5장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 시험받으실 때, 사단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관념을 깨고 기적 행하시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과 전혀 상관 없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마 14:13).

마태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가 했던 신앙고백의 세번째 내용은 “세상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미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창3:15; 신18:15-18; 사53; 시16:10, 22:1-18; 삼하7:16).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전쟁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앞으로 제왕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셔서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찬양을 개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소유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르다와 같이 말씀에 근거한 신실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질 때

새로운 힘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네가 그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가야바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선지자나 제사장의 의미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왕의 의미로 받아들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막 14:61-65).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빌라도 앞에 있을 때,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요 18:33-36). 대화의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인 의미의 왕이 아니라는 것

로써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자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을 보려고 하는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했던 신앙고백의 두번째 내용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행악자들은 왕이나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태함을 받은 사람에게 왕,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삼하7:14; 시2:7, 89:26; 렘31:30).

그런데 마르다가 신앙고백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과 죽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91년도 우리 교회 절기 예배 및 사업 계획

◎ 절기 예배

기 간	명 칭	내 용	주 관
1. 1(화)	송구영신예배	•대상: 전교인 •장소: 본당	예배위원회
3. 27(수)	고난주간음악예배	•합창: 할렐루야찬양대 •장소: 본당	예배위원회
3. 31(주일)	부활절예배	1.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1) 연합예배: 전교인 참석 (2) 연합예배 참석치 못한 성도는 본당에서 예배 2. 부활절 예배: (I~IV부 예배) 3. 부활절 찬양예배 •합창: 시온찬양대	예배위원회
7. 7(주일)	백수감사절예배	1. I~IV부 예배: 전교인 2. 찬양예배: 영아부 어린이의 특순 및 교사 찬양	예배위원회
9. 1(주일)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감사 예배	1. I~IV부 예배: 전교인 2. 찬양예배: 특별 찬양	예배위원회
11. 17(주일)	추수감사절예배	1. I~IV부 예배: 전교인 2. 찬양예배: 유치부 어린이의 특순 및 교사 찬양	예배위원회
12. 24(화)	성탄절 축하 예배	1. 성탄절 야 음악 예배 (1) 일시: 12. 24(화) 저녁 7시 (2) 장소: 본당 (3) 합창: 초등 1~6부 2. 성탄절 새벽 예배 (1) 일시: 12. 25(수) 새벽 5시 30분 (2) 장소: 본당 3. 성탄절 축하 예배 (1) I부 예배: 오전 9시 (2) II부 예배: 오전 11시(중등부 이상 교인) (3) 성탄절 축하음악예배(합창: 할렐루야찬양대)	예배위원회

◎ 세례식 및 성찬식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문답및교육	세례식 주간 월, 화요일	학습, 세례, 입교, 개종 문답 및 교육	당 회
세례식	매월 셋째 주 지난 수요일	목표: 세례 - 1,200명 학습 - 1,700명	당 회
성찬식	1. 6(주일) 3. 31(주일) 7. 7(주일) 11. 17(주일)	신년 예배시 부활절 예배시 백수감사절 예배시 추수감사절 예배시	당 회

◎ 수련회 및 제자훈련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청지기수련회	1월	1.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1) 일시: 1. 1 오후 6시~1. 2 오전 11시 (2) 장소: 중원기도원 2. 권 사 (1) 일시: 1. 9(수) I부 예배 후 (2) 장소: 갈릴리움 3. 교 사 (1) 일시: 1. 10 저녁 7시 30분 (2) 장소: 갈릴리움 4. 직 원 (1) 일시: 1. 11 오후 1시 (2) 장소: 소식관 109호 5. 찬양대원 (1) 일시: 1. 12 저녁 7시 (2) 장소: 본당 6. 교구일꾼 (1) 일시: 1. 18 저녁 7시 (2) 장소: 본당 7. 여전도회 임역원 (1) 일시: 1. 30 수요일 I부 예배 후 (2) 장소: 갈릴리움 8. 남전도회 임역원 (1) 일시: 1. 30 수요일 II부 예배 후 (2) 장소: 갈릴리움	당 회
제자훈련	3월~5월	1. 일시: 매주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 2. 장소: 중원기도원 3. 대상: 제직원 전원, 교사, 찬양대원, 기타 희망하는 성도	제자훈련원
92년도신임서리 집사후보자교육	9월	1. 일시: 9. 12(목)~13(금)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 2. 대상: 92년도 서리집사 후보자로서 당회의 면접에 합격한 자	성경연구원
신임임직자 제자훈련	10월~11월	1. 일시: 10. 17~18, 24~25, 10. 31~11. 1 중 선택 2. 장소: 중원기도원 3. 대상: 92년도 신임 서리집사 후보로서 당회의 면접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	제자훈련원

◎ 제2회 전국 목회자세미나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제1학기	2월~4월	1. 일시: 2. 11(월)~4. 15(월) 오후 2시~5시 30분 2. 주제: 교회 성장과 갱신	한 국 교 회 성 장 연 구 원
제2학기	5월~7월	1. 일시: 5. 6(월)~7. 8(월) 오후 2시~5시 30분 2. 주제: 예배와 선교	
제3학기	9월~11월	1. 일시: 9. 2(월)~11. 14(월) 오후 2시~5시 30분 2. 주제: 목회자와 교육	

◎ 성경공부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아담반	3월~5월 9월~11월	1. 일시: 매주 금요일 새벽 6시 제1학기: 3. 15(금)~5. 24(금) 제2학기: 9. 6(금)~11. 15(금) 2. 장소: 만나홀 3. 대상: 남성도(여성도의 청강도 가능)	성경연구원 남 전 도 회
제4회 부부교양강좌	4월~5월	1. 일시: 4. 23(화)~5. 14(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 장소: 본당	성경연구원 부 부 교 양 대
살롬경로대학	4월~6월 9월~11월	1.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30분 제1학기: 4. 18~6. 27(목) 제2학기: 9. 5~11. 14(목) 2. 장소: 갈릴리움 3. 대상: 60세 이상의 남녀(불신자도 가능)	살롬경로대학

◎ 회 의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공동의회	1월	1. 일시: 1. 6(주일) IV부 예배 후 2. 장소: 본당 3. 참석: 우리 교회 세례 교인	당 회
정기제직회	격월	1. 일시: 학수달 첫째 주일 찬양 예배 후 2. 장소: 본당 3. 참석: 서리집사 이상	제 직 회
특별제직회	12월	1. 일시: 12. 29(주일) 찬양 예배 후 2. 장소: 본당	제 직 회

◎ 출 판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주간총현	매주	1. 매회 18,000부 발행 2. 성경강해, 간증, 중원다락방, 교회소식, 독자란 등	기획위원회
성경통신강좌	매주	1. 목적: 1년에 성경 1독 2. 주보에 게재 3. 대상: 전교인	성경연구원 교구위원회
총현의만나	매월	1. 가정 예배 안내지 2. 매회 13,000부 발행	총 현 교 회 출 판 부
계간총현	3. 6, 9, 12월	1. 신앙 교양지 2. 매회 13,000부 발행	기획위원회

◎ 총 회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권사회	12월	1. 일시: 12. 4(수) I부 예배 후 2. 장소: 갈릴리움	권 사 회
스데반회	12월	1. 일시: 12. 4(수) II부 예배 후 2. 장소: 국제회의실	스 데 반 회
남녀전도회	12월	1. 일시: 12. 15(주일) IV부 예배 후 2. 장소: 본당	전도위원회
찬양대회	12월	1. 각 찬양대별로 실시 2. 일시: 12. 16(월)~22(주일)	찬양위원회
교사회	12월	1. 각 부서별로 실시 2. 일시: 12. 23(월)~28(토)	교육위원회

◎ 주요행사

명 칭	기 간	내 용	주 관
교회학교 동기수련회	1월~2월	각 교회학교별로 개최	해 당 부 서
미래지도자를 위한 바른 대학생활안내	2월	1. 일시: 2. 22(금)~23(토) 오후 2시~6시 2. 장소: 중원교회당 3. 대상: 서울 시내 대학 신입생 및 학부모	대 학 부 CCC
장학금수여식	3월 9월	제1학기: 3. 17(주일) 찬양 예배시 제2학기: 9. 8(주일) 찬양 예배시	장 학 회
제3회 총현심포지움	3월	1. 일시: 3. 25(월) 오후 2시 2. 장소: 본당 3. 주제: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신학 교육과 교회	준비위원회
제5회 교구찬양대회	4월	1. 교구별 합창단 및 가곡 중창단 조직 2. 장소: 본당	교구위원회
제3차 총현올림픽	5월	1. 일시: 5. 21(화) 오전 10시 2. 장소: 올림픽 제1 실내 체육관	준비위원회
경로잔치	5월	1. 일시: 5. 11(토) 오전 11시 2. 장소: 갈릴리움 3. 초청: 70세 이상의 우리 교회 성도	청년1~3부
제2차 김치(KIMCHI) 세미나	5월~6월	1. 일시: 5. 28(화)~6. 7(금) 2. 개회 예배: 5. 28(화) 저녁 7시 국제회의실 3. 새벽기도회: 제4차 종래작전과 병행 4. 대상: 중국계 동남아시아 교역자	세계선교와 교회갱신을 위한 한국 연 구 원
제4차 홍해작전	6월	1. 일시: 6. 6(목)~16(주일) 2. 장소: 본당, 갈릴리움, 베다니홀 3. 참가 예상 인원: 매일 7,000명 4. 인도: 이종윤 위임목사	홍 해 작 전 본 부
교회학교 하기수련회	7월~8월	각 교회학교별로 실시	해 당 부 서
하기전도대파송	7월~8월	10개 지역 교역자 인솔하에 대원 파송	전도위원회
제3차 김치(KIMCHI) 세미나	8월~9월	1. 일시: 8. 27(화)~9. 6(금) 2. 개회 예배: 8. 30(금) 저녁 7시 국제회의실 3. 새벽기도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각성 새벽 기도 운동과 병행	세계선교와 교회갱신을 위한 한국 연 구 원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적 각성 새벽 기도 운동	8월~9월	1. 일시: 8. 28(화)~9. 6(금) 2. 장소: 본당 3. 참가 예상 인원: 매일 3,000명	세계선교와 교회갱신을 위한 한국 연 구 원
교회 설립 제38주년 기념 행사	9월	1. 찬양 예배: 9. 1(주일) 찬양 예배시 2. 교회학교별 행사 (1) 기간: 8. 15(목)~9. 15(주일) (2) 성경 암송, 웅변, 성경,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당 회
불우이웃 위로 초청잔치	9월 12월	소년, 소녀 가망, 신문배달 청소년, 미화원, 절대 빈곤 가정 초청	구세위원회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	10월	1. 기간: 10. 11(금)~12(토) 2. 장소: 뱃마게 광장	구세위원회
새가족 환영회	격월	1. 일시: 학수달 첫째 주일 IV부 예배 후 2. 장소: 갈릴리움	교구위원회 새 가족 부
직분자임명식	12월	1. 서리집사 및 교구일꾼: 12. 1(주일) I~IV부 예배시 2. 교사: 12. 8(주일) III, IV부 예배시 3. 찬양대원: 12. 8(주일) (1) 가브리엘찬양대 - I부 예배시 (2) 임마누엘찬양대 - II부 예배시 (3) 핸드벨화이어 - II부 예배시 (4) 할렐루야찬양대 - III부 예배시 (5) 오케스트라 - III부 예배시 (6) 아멘찬양대 - IV부 예배시 (7) 시온찬양대 - 찬양 예배시 (8) 베들레헬찬양대 - 찬양 예배시 (9) 크로마하르단 - 찬양 예배시 (10) 호산나찬양대 - 12. 11(수) I부 예배시 (11) 살로암찬양대 - 12. 11(수) II부 예배시	당 회
원로추대식	12월	1. 일시: 12. 29(주일) 찬양 예배시 2. 대상: 만 70세 이상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당 회
근속자포상식	12월	1. 일시: 12. 29(주일) 찬양 예배시 2. 대상: 10년, 15년, 20년 연속 봉사자	당 회

우리 교회에서 70세 이상의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기도와 전도에 여념이 없는 소망부.

소망부에서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모범적인 교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말씀 묵상의 모범을 보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입니다. 전도의 모범을 보입니다.”라는 표어를 정해 놓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소망부는 매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갈릴리홀에서 약 3백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지도 목사인 김양흡 목사의 설교로 집회를 가지며 집회가 끝나면 질의 응답의 형

정이다.

한편 다른 부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소망부만의 특성이 있다. 먼 경사가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자녀들이 소망부로 찾아와 음식을 대접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자주 있는 것이다. 남은 여생을 전도와 기도에 힘쓰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는다고 모두들 입을 모으고 있다.

기도원에 올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주일마다 할아버지들이 각 구청을 찾아다니며 주관

탐방

기도·전도·봉사로 젊어지는 소망부



식으로 반별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입을 모아 찬양드리는 찬송가 부르기 대회와 성경암송대회를 가져 신앙과 친교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여름철에 1박 2일로 충현기도원에서 수양회를 가지며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소망부의 올해의 계획은 다양하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족들이 모여 가족초청잔치를 5월에 가질 예정이며 양로원을 지정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예

충현과 전도지 등 교회 간행물을 배부하는 등 기도와 전도 활동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대접만 받으려는 소망부가 아니라 비록 길사람은 후회하였으나 속사람은 날로 젊어져서 항상 즐겁게 봉사하는 소망부가 되기 위해 매일 교회 환경을 정돈하며 본당의 헌금 봉투함을 정리하는 등 작은 봉사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몸소 실천한다.

올해로 창립 16주년을 맞는 소망부는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의 신앙을 성숙시키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저에서 열심히 기도으로써 뒷받침을 하고 있다.

독자의 글

눈 오는 날의 기도

윤 영 남 집사(제11교구)

새해 첫날부터 내린 눈은 반가운 손님이다. 사죄받은 영혼처럼 눈부신 모습으로 나를 불러 세운다. 한 그루 나무조차도 흰 옷으로 고개숙여 인사를 하는 듯하다. 내려서 쌓이고 쌓이다가 녹는 눈 속에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다가 온다.

J권사님의 옷은 모습. 순간 부끄럽고 송구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진다. 무섭도록 집값이 치솟던 그 해 겨울이었었다. 믿었던 정책에 분노를 참지 못해 울부짖고 싶을 때였다. “내 영혼아 네가 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시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장 5절의 말씀을 갖고 찾아 오셨다. 익숙치 못한 서울 생활을 아시는 터라 늘 안쓰러워 하시며 위로와 기도로 안아 주셨다. 그 품 속은 깊었고, 그 무릎은 편안했던 추억이 옷자락을 날리며 손짓한다.

또 새벽마다 기도의 동행자로 나를 깨우시던 K 집사님의 음성 이 들리는 듯하다. 새벽 바람이 차다고 목도리와 긴 양말까지 챙겨 주시던 그 마음의 언저리를 찾아 눈을 감고 손을 모은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사랑의 덧옷을 입혀 주시던 구역 식구들... 하나씩 스쳐가는 얼굴마다 원형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이

모습들이 사라질까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선 채 기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가운데 하나는, 아니 최대의 일 가운데 중심되는 하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전화 벨이 울렸다. K 선생님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백색의 세계에서 한 잔의 차를 나누며 마주 앉고 싶다는 주문이다. 눈 사이라도 날아서 가고 싶은 마음을 먼저 보내고, 기도 중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전화를 끊었다.

마침 저 쪽에서 막내 딸이 불려서 갔더니, 낯선 공책을 펼쳐 보았다. 그것은 딸의 일기장이었다. 모박모박 쓰여진 글귀는 나를 당황케 했다.

“토요일날 엄마 몰래 찬양대 시험을 보러 갔다. 오늘 합격 발표를 했다. 6학년 때 찬양단원으로 기쁘게 맡겼 찬양하고 싶었다. 그러나 엄마는 일찍 연습하며 늦게까지 연습해야 된다고 말리셨다. 혹시나 떨어질지도 몰라서 몰래 시험을 본 것이 엄마를 속이게 되었다. 합격 발표에 나는 기뻐지만 한 쪽 마음이 무거워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찬양드리고 싶어서 치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찬양대 연습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엄마를 타일러 주세요. 주님! 이 주먹권 결심으로 아름다운 찬양이 되도록 지켜

봐 주세요.”

딸은 썩웃으며 나의 허리를 힘껏 잡는다. 그를 꼭 껴안고 나도 기도하기 시작했다. “무한한 우주의 하나님, 자유와 기쁨 마음의 하나님이지요! 주님의 얼굴을 만민 중에 내미실 때 복잡한 도시에도, 비좁은 저의 마음에도 넉넉한 여유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백설처럼 나의 죄를 덮으실 때 나는 주님의 품안에서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에워싸실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매순간 거듭남으로 옛사람의 티를 벗고 싶습니다. 천지가 하양토록 흰 칠을 했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이 회개 씻어 주심을 믿나이다. 안일과 나태로 얼룩지고 본능적인 습관에 더럽혀진 영혼이 정진함으로 깨끗이 되길 원합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분별할 줄 알며 구별된 자로서 믿음으로 일하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줄 알며, 소망을 갖고 참으며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삼 남매의 어머니 사랑에 끈이 되어 주시고, 새로 만난 중등 3부 10반 여학생들의 교사로서 열심이 있는 관용을 허락하소서. 금년에도 주의 권능을 의지하는 자마다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창 밖에는 꽃송이처럼 날리던 흰 눈이 내리고 있었다.

현다락방

제 3 과 약속의 무지개

본문 : 창세기 8 : 20 ~ 9 : 19

찬송 : 493, 535

본문 연구

1. 본문의 배경 :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속에 죄악이 들어 왔습니다.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었고,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온 땅이 살인과 음행과 우상 숭배로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사용하셔서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셨습니다.
2. 새 시대의 시작(1절~7절) : 하나님께서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축복을 주셨습니다(1절~7절). 또한 이에 덧붙여서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였고(2절), 고기를 양식으로 삼도록 허락하셨습니다(3절~4절). 그리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심으로써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셨습니다. 실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3. 새 시대를 위한 언약(8절~15절) :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사람들이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11절), 그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12절~13절). 그리고 거둬 보증하셨습니다(14절~15절).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으며, 인류를 향한 사랑과 신실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4. 결론 : 우리는 대 홍수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보존의 언약’을 통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 2) 만약 그렇게 되면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 3)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을 보존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십니다.
- 4)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세상을 살면서 살인, 음란, 낙태, 가정 파괴, 부정과 부패를 비롯한 각종 죄악과 이를 유발시키는 물질주의, 개인주의, 우상숭배, 과학주의 등 각종 그릇된 사고와 태도를 청산하고 날마다 자신과 가정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문답

1. 하나님께서는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창6:5~7)?
2. 노아에게 주신 명령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3. 노아의 홍수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토의

1.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 봅시다.
2. 지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결심한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3.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체험한 은혜를 발표해 봅시다.

기도

1. 나의 삶 속에 더러워진 부분을 청산하고 늘 새롭게 살도록 기도합니다.
2. 청지기 수련회와 교회학교의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서로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